전세계의 시선, 평창으로…지구촌 '눈과 얼음 축제'

9일 개막…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30년 만에

역대 동계 사상 최다국…北참여로 평화 · 화합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이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11월 4일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 평창동계올림픽 개 · 폐회식장(평창 올림픽 플라자)에서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하는 '2017 드림콘서트 인 평창' 행사에 수만 명의 10대 아이돌 그룹 팬들이 지붕도 없는 관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됐다. 수만 명이 운집한 행사는 개 · 폐회식장 완공 후 처음으로 올림픽 이후 철거를 전제로 지어져 예산 절감을 위해 지붕이 설치되지 않아 추위와 비, 눈을 피할 수 없어 장시간 앉아 있는 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인다.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자해 경기장과 시설을 손봤다. 최근에는 KTX가 개통돼 서울과 평창을 1시간20분 만에 오갈 수 있게 됐다. 2시간6분이면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강릉에 도착할 수 있다. 숙소, 교통, 편의 시설도 재정비해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이번 대회에서는 역대 동계올림픽 사상 가장 많은 90여개국이 경쟁을 벌인다. 29일 최종 엔트리 마감에 앞서 변수는 존재하지만 4년 전 소치 대회에서의 88개국은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전격 참가 결정은 평화와 화합을 구현하는 올림픽 정신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줬다. 한국에서 열리는 올림픽 참가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던 북한은 화합의 메시지를 담은 김정은의 신년사를 기점으로 태도를 바꿨다.

안방에서 동계 스포츠 강국의 이미지를 굳히려는 한국은 금메달 8개, 은메달 4개, 동메달 8개로 종합 4위를 노린다. 기존의 최고 성적은 2010년 밴쿠버 대회에서의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2개로 당시 한국은 종합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 주자인 이상화(29 · 스포츠토토)는 여자 500m에서 올림픽 3연패에 도전한다. 여자 스피드스케이팅 500m에서 세 대회 연속 정상에 오른 선수는 미국의 보니 블레어(1988 · 1992 · 1994) 뿐이다. 4년 주기로 3개 대회를 연달아 제패한 이는 전무하다.

전통적인 효자종목인 쇼트트랙에서도 무더기 금메달이 기대된다. 여자 대표팀을 쌍끌이 하는 최민정(20 · 성남시청)과 심석희(21 · 한국체대)는 다관왕을 두고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고, '소치 노메달'로 체면을 구긴 남자대표팀은 안방에서 부활을 꿈꾼다.

스켈레톤의 윤성빈(24 · 강원도청)은 쇼트트랙과 스피드스케이팅에 치중된 '메달 편식'을 풀어줄 강력한 후보다. 체대입시를 준비하던 평범한 고교생이던 2012년, 이름도 생소한 스켈레톤에 뛰어들었고 어느덧 올림픽 금메달까지 넘보고 있다. 이번 시즌 6차례 월드컵에서는 금메달 4개와 은메달 2개를 획득해 예열을 마쳤다.

해외에서 날아올 스타들의 면면 또한 화려하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3 · 미국)와의 교제로 유명세를 탄 '스키 여제' 린지 본(34 · 미국)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올림픽에서 유종의 미를 노린다.

스노보드 하프파이프의 대명사로 비디오 게임의 주인공으로 등장하기도 한 숀 화이트(32 · 미국) 역시 만날 수 있다. 화이트는 14일 미국 콜로라도주 스노매스에서 열린 2018 국제스키연맹(FIS) 스노보드 월드컵 남자 하프파이프에서 100점 만점으로 1위에 올라 평창에서의 기대감을 부풀렸다.

세계 남자 피겨계를 주름 잡고 있는 소치 대회 우승자 하뉴 유즈루(24 · 일본)와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의 스벤 크라머(32 · 네덜란드) 역시 평창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낸다.

뉴시스